



化身

INCARNATION

최은희무용단의 2009 창작 공연

2009.12.1(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대극장

화신 (化身)

작품 의도

옛 그리스의 도시 테베로 들어가고자 하는 나그네라면 누구나 스팅크스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듯이, 화신(化身)의 경지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행(淨行)을 거쳐야 한다.

이 작품은 중생 제도차 이 세상에 나타나신 석가의 일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네 원소(地, 水, 火, 風)의 순환을 통해 이 땅에 새 생명을 계시하고자 하는 구원자로서의 여인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태초 이 땅에는 불이 일고, 물이 흐르며, 바람이 일렁이고 비로소 조합되어 열의 에너지들로서 마음과 새 생명들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우주의 잉태를 담고 시작된 이 땅의 거대한 역사는 그 발전 과정상 '탄생'과 '소멸'의 시간대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 소멸로 이어지는 죽음의 미묘한 과정은 속세에서 흔히 보듯 단순한 '허락 받은 생명의 기간'이 아니다. 이 소멸과 죽음의 여로는 인간의 재탄생을 위한 의미 있는 생명의 여정인 것이다.

전쟁과 재앙으로 불구가 되고, 고통 받는 우리 중생들 앞에 나타난 여인은 새로운 생명의 계시자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미래 세상에 우리에게 오실 미륵부처이기도 하다. 화신은 단순히 하늘의 구원자나 계시자로 우리 눈에 나타난 신화속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으로서 사랑과 연민을 느끼는 내면의 고행자이다.

정행을 거쳐 도달하는 고행자로서의 여인은 내적으로 지혜와 화신의 경지를 추구한다. 여인은 화신으로서의 재탄생을 위한 수행 과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여인은 일그러지고 무너진 우리 사회의 도덕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평온, 평화, 그리고 자유의 세계를 제시해 주고 또한 이를 갈구하라고 역설한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과 민족 갈등, 그리고 이를 부추겨 권력을 쟁취하려는 위정자들의 야만성, 대중을 기만하는 가진 자들의 혼란상, 대립과 갈등 그리고 경쟁과 끝 모를 소유욕...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보통사람들의 거대한 무리, 그 속에서 고행으로써 구도를 실천한다. 그리고 고통 받는 세상의 속물들을 물로 씻어 정화하며 새로운 탄생을 보여준다.

세상에 다시 태어난 새 생명들. 꽃과 나비의 화려한 무리 속에서 힘차게 솟구쳐 날아올라 선연한 곡선을 그으며 마치 우주를 유영하듯 난다. 이어 다시금 거대하고 화사한 꽃 속으로 빨려들 듯 스며든다. 순결하게 정화된 새 생명체로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여인은 무리들에게 끝없이 새 생명의 의미를 보여주며 축원한다.
모든 무리가 여인을 향해 끝없이 합장배례(合掌拜禮)한다.



작품 내용

제1장 [프롤로그]

인간의 세상은 종말을 고했다.
끝없는 전란과 대재앙으로 대지는 황폐해지고 생명은 모두 스러졌다.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은 죽음과 어둠뿐이다.

제2장 [태(胎)] 새 생명의 탄생

파멸과 죽음의 땅에 한 줄기 빛이 뻗어온다.

새 생명이 움트고 새싹이 돌아나던 대지가 서서히 융성거린다.
인간의 심연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갈등을 다스리려는 듯
하나씩하나씩 지워나가며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

제3장 [염(炎)] 욕망의 신천지

작은 다툼이 거대한 전란(戰亂)으로 번진다.
사람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하며 원망한다.

저주의 부적이 똥똥 떠다니다 이내 만국기로 바뀐다.
남과 북이 갈리고, 동과 서가 속절없이 균열한다.

거칠고 투박한 다툼과 처절한 전쟁이 끝없이 이어진다.
주검이 쌓이고 통곡소리가 진동하는 아귀와 같은 세상이다.





제4장 [사(沙)] 이전투구의 세상

민중의 시대, 그 속에 등장하는 허망하게 일그러진 이상들.

번뇌와 망상의 고(苦)가 깊고 클수록
모래의 바벨탑은 더욱 높아져 위태롭기만 하다.

혼란의 바람 속에서 비틀거리는 우리 시대, 민중의 이상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5장 [화(花)] 낙원의 도래

화인(火印)과 같은 고통을 안은 사람들 사이를
스치듯 지나가며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천상의 소리, 지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만물의 소리가 새 생명의 합창을 이룬다.

꽃은 점점 더 커져 화려하게 만개(滿開)한다.
물은 그 주변에서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흐른다.

새 생명의 계시자가 도래한다.
비로자나불의 미소가 세상을 감싼다.

제6장 [에필로그]

씻김을 받아 소생한 이들은 차례차례 108배를 한다.

Eun-hee Choi - 안무 · 연출

부산의 한국 창작춤의 첫발을 일군 대표적 춤꾼이자 안무가인 최은희는 1955년 인천 출생으로 이화여대와 동 교육대학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였다. 이어 국립국악원(1978)과 정신문화연구원(80~82)에서 궁중무용과 무속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기를 겸비하여 왔고, 이 기간 동안 **故김천홍, 故한영숙, 이매방, 故김병섭(농악), 김매자**님께 사사했다. 그 후 부산으로 이주하여 부산과 경남의 무속과 민속춤에 많은 연구를 했으며, 이러한 경력은 여러 작품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토속적인 제의식들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82년 첫 개인 발표회인 [夏至祭]를 갖고 그 해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넋들임]을 안무하여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85년에는 부산 최초의 민간 단체인 '춤배 배김새'를 창단하여 지역에 있는 우리 춤 언어를 찾고자, 새로운 창작 기법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20여 년 동안 한국창작 무용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한국무용을 레퍼토리화 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외국 초청 공연으로는 동서 베를린 민속문화축제 초청 공연 및 일본 나가사키현 초청 공연, 북경 국제대학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국제 무용 페스티벌, 호주 시드니 문화축제, 중국 길림예술대학 초청공연, 대만 카오슝 기와복 예술제, 대마도 조선통신사행렬 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아리랑 축제에 10여 년 이상 동안 10차례의 공연과 일본 마유즈미 무용단 20주년 초청 아시아 한·중·일 민족무용교류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제2회 펠피 세계문화올림픽 등에 참가하여 여성무용상을 수상(2005)하였다. 또한 민간 단체 활동뿐만이 아니라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장(1983~1984), 울산시립무용단 초대 안무장(2000~2002)을 역임하면서 부산, 경남 문화 발전에 폭넓게 이바지하였으며, 한국무용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오늘날의 화두에 해답을 찾고자 창작 활동 이외에도 전통무용을 습득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1994)로 지정되었다. 30년이 넘는 무용활동 기간 동안 15회의 개인 공연과 각종 무용제 및 예술제 공연을 통해 50여 편의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1998년 이후에는 네 차례의 홀춤 공연을 선보이면서 굳어터기가 없는 간결한 몸짓으로 과거의 춤과 오늘날의 춤을 되새겨 주고 있다. 제의식에 근간을 둔 초기의 작품과 달리 최근에는 무대 메커니즘 활용의 극대화, 한국 전통무용 춤사위의 이미지화, 서사적 구조의 상징화 등 작품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꾀하여 한국 창작무용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소극장, 대극장, 야외무대 등 무대라는 공간에 따른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 회장, (사)한국무용연구회 부이사장, (사)민족미학연구소 이사, (사)봉생문화회 이사,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한국무용예술학회 부회장

Digital Media

최 성 원

Choi Seong-won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는 무용으로 언제나 우리의 심성을 자극하는 최은희 교수의 무용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대의 어떤 군상을 표현할까 하는 두근거림으로 또 다시 최은희 교수의 영상을 맡게 되었고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욕망과 대결, 이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고 모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가장 천한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여지는 현대인의 군상 그리고 그로 인해 파괴되어지는 환경의 파괴... 등등

이는 언제나 최은희 교수가 인간으로서 인간을 고민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춤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시대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시대의 아픔을 춤으로 승화하려는 최은희 교수의 의미를 미흡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필 : 성균관대학교 졸업, 프랑스 리옹2대학 방송영상 창작학과 및 스위스 로잔 예술대학 컴퓨터 이미지 종합학과 졸업, 1990년부터 유럽전역에서 3D animation 프리랜서로 활약하였고, 프랑스 프리렉선 C&L, 프랑스 IBM 그리고 프랑스 국립영상연구소 INA에서 Animator로 활약하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들 제작하였다. 1997년에는 프랑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필름 페스티벌'에서 3D animation 작품 'contemporary Times'가 본선에 올라갔다. 정인여자대학을 거쳐 동명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유인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게임오프닝, 건축 시뮬레이션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Music

양 용 준

Yang Yong-Joon

올해에도 최은희 교수님과 함께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작품 의도는 요즘의 복잡다단한 사회속에서 옛보게 되고 삶속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수님의 작품 연출 의도에 또다시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에도 서울과 부산에서 교수님과 함께 작업하는 데에 거리가 중요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한창 작업기간 중이지만 부디 이번에도 성공적이며 모범적인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필 : 양용준은 한국과 독일에서 작곡과 전자음악을 전공하였다.

ZKM(예술과 미디어 어 테크놀로지센터)에서 초청예술가로 근무했었고 지금은 귀국하여 작곡가/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순수음악을 기본으로 창무회, 안애순무용단 등의 무용 음악과 설치 음악 등 실용음악을 주로 작업한다. 최근에는 30회 서울무용제에서 음악상을 받았다.

활동: 21세기작곡연구회, DEGEM(독일전자음악협회), KEAMS(한국전자음악회)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잠신대 감사, 국민대 감사, 나비 아카데미 감사

출연진



하연화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사) 한국무용연구회 이사
부산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교무
전수자



구영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세종대학교 무용학 박사 재
(사) 한국무용연구회 이사



박성호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경성대학교 박사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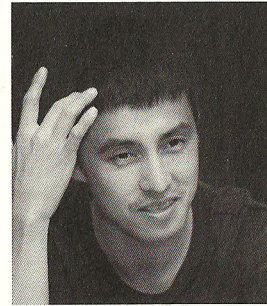
한수정

경성대학교 무용교육전공 석사
울산시립무용단 단원
중요 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전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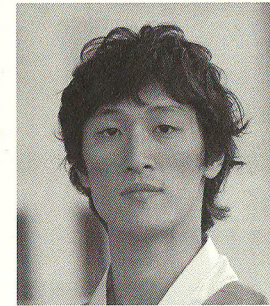
조은정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무용교육전공 재
제21회 부산무용콩쿠르
한국무용창작동상



김영찬

부산 국립국악원 인턴 단원
제24회 부산무용콩쿨 은상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전수자



장영진

부산시립무용단 비상임
제24회 부산무용콩쿨 동상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전수자



김경아

경성대학교 무용교육전공 석사 졸
제22회 부산무용콩쿨 금상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전수자

스탭

연출·총안무 : 최은희 / 대본 : 정재형 최은희 / 조안무 : 하연화, 박성호 / 훈련지도 : 구영희 / 영상 : 최성원(용인대학교디지털미디어과교수) /
음악 : 양용준 / 무대미술 : 이육상(오픈페이스 배 에듀케이터) / 조명 : 광동인 / 무대감독 : 서종철, 이정남 / 의상 : 강동인 / 촬영 : 데자뷰 /
사진 : 이선화, 이호형 / 소품 : 김도연 / 기획 : 안주현 / 진행 : 정미숙, 손미란, 김정원, 김민경



안주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조교역임
 한국예술교육진흥원 무용강사



이혜정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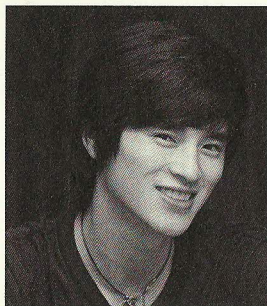
정은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재



하원겸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



박수정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이사론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김보경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최혜란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남진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정현주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진현주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백혜인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특별출연/

허정연 (덕상초등학교 6)
 김민주 (성남초등학교 4)